

범여 비례연합 '더불어시민당' 출범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 우희중(오른쪽 세 번째), 최배근(오른쪽 네 번째) 공동대표 등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각당 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연합정당의 출발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포합 6개당 구성 당선 가능권 16명 전망 1~10번 소수정당 배려 녹색당·미래당 참여 의사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구성한 4·15 총선 비례대표용 범여권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공식 출범했다.

'시민을 위하여' 우희중·최배근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 6개 정당은 '단 하나의 구조,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며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의당이 합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석의 공간은 그동안 기성정당만으로는 그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던 시민사회의 역량과 목소리를 담아 시민사회의 확장성에 기여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21일 정도

까지 시민 추천을 받겠다. 추천받은 개혁 인사를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공천심사위원을 따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직 동침이 불분명한 정당이 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않은 정당의 반지리는 여전히 비우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정할 시간이 없다. 먼저 동참한 정당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의당의 합류 의사가 늦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시민 추천 후보에 대해 "각 소수정당에 3명까지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주지만 공심위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한 명도 배당이 안 될 수 있다"며 "그러면 시민사회 영역으로 넘어가고, 시민사회 영역에 없으면 소수정당으로 뒤편 다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계산에 의하면 16명 정도(당선이 가능하다).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9번 내지 10번까지가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영역이고 민주당이 그 뒷번호가 될 것"이라며 "앞번호 배치는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 선거법에 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총선 후 당선자들과 연합정당의 거취에 대해서는 "(당선자들은) 각 정당으로 복귀하고, 정당 소속이 아닌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남겨나 무소속으로 가거나 개인을 판단에 맡길 수 있다"며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승계 문제가 있기에 21대 국회 기간에는 당 구조물은 유지한다.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막을 내리고 저희 두 대표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용지상 기호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의 파견을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대표는 "민주당과 관계없이 불출마 의원 중 저희가 개인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고, 우 대표는 "10분 정도를 최소한 모실 예정이다. 그래야 미래한국당에 대응한다는 취지가 산다"고 말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도 합류 여지를 열어뒀다. 녹색당과 미래당과 관련해서는 최 대표가 "어찌까지 참여 안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젯밤 늦게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들었다"며 "(두 당이) 오늘 오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다.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생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결

갈등 속 대안신당·평화당계 강행...더불어시민당 측 거절 의사

민생당 지도부가 18일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김경태 공동대표 등 바른미래당계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의결했다.

평화당계인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최고위원회를 열고 "어제 의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비례연합 참여에 대해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 박 대표는 장정숙 원내대표와 황인철·

이관승 최고위원 등 3인이 제안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제안을 상정하고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찬성으로 가결을 선언했다. 박 공동대표는 "당헌에 의하면 최고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다"며 적법하게 의결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계인 김경태 공동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의 연합정당 참여 결의를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못 박고 자리를 떴다. 이에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다시 소집해 의결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계 당직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최고위를 주재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만큼 이날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는 민생당 지도부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사에 대해 "지도부 이견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비례연합 참여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계 지도부가 자체 후보를 낼 수 있으므로, 민생당 일부 의원들의 참여 입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총선 라운지

장병완 "추경, 소상공인에 신속 지원을"

민생당 장병완 광주 동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코로나19 대응 추경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3대 원칙을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거대양당의 '네트 공방'으로 좌초될 뻔 했지만 제 3당인 우리 민생당의 조율로 국회를 통과해 국가위기사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된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인 만큼 ▲신속 ▲정확 ▲효과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병훈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높은 등록금이 학자금 대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마다 62만 7천여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부채를 안고 사회에 나가고 있다"며 "빛 없는 청년"을 위해서라도 '취업후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생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자만 연간 200만 원이 훌쩍 넘어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은 이자를 갚지 못해 빚이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주선, 전남대병원서 감염병 대응 간담회

민생당 박주선 광주 동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남대병원에서 '사회재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체계 모니터링 및 향후 개선방안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삼용 전남대 병원장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한 시설 및 인력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차세대 전자시스템 및 고도화 사업 ▲외래 진료센터 개축·증설 ▲CT·MRI를 포함한 첨단장비 지원 등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명진 "지속 가능한 성평등 대책 세워야"

민생당 김명진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광주시의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대책 수립에 대해 '성평등지수 끌어올리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시는 지난 16일 지역성평등지수 하위 분야 중 안전분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지역성평등지수 높이기 박차'라고 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광주시는 중앙부처의 '지수' 통계에 연연하기보다 취약점을 세밀히 파악해 지속 가능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조오섭,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조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고, 중앙당 부대변인으로서 원팀정신에 입각해 민주당의 심장 광주를 되찾고, 전국적인 총선 승리 바람을 광주에서 일으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의 파격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김동철 "전통시장 피해 대책 마련 최선"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송정5일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1913, 내상로 상가일대를 둘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피해대책 마련과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금은 비상사태인 만큼 긴급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정훈 "영산강고대문화권개발 국가계획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영산강 강변도로 자전거투어를 하고 "영산강고대문화권개발의 국가계획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빛가람중 사이클부 학생들과 함께 최근 개통한 영산강 강변도로 자전거투어를 하고 "2027년까지 6911억원이 투입되는 영산강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이 국가 차원의 발전계획으로 수립하고, 고대역사문화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산강 고대문화권은 유적 674개소 중 443개소(66%)가 미발굴 상태로 가야 등 타 고대 문화권에 비해 저조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국비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



윤영일, 남해안철도 교량화 사업 현장 격려

민생당 윤영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성·임성리(남해안철도) 제5공구 계곡면 교량화 추진 상황을 현장에서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예비후보는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남해안철도 해남 계곡면 구간을 토공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토공 최대 높이가 11m가 넘고 여수리와 용계리를 가르면서, 주변 논밭의 영농효율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교량화 설계 변경' 필요성을 건의해 '토공 부분 교량화를 별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고 소개했다. /김형호 기자 khh@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급 영업 및 협력사업업체)을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전국 시·군구
- 자격 및 우대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공서 납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 주요 아이템: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 문의 및 접수: (주)애니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3. 3(화) 오후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2. 25(화) 오후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매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점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점(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 1, 2단계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평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49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냐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 동광 266-1920 · 신안 222-8171 · 용봉 433-1503	· 문물 266-1960 · 양산 571-7658 · 우산 433-1503	· 북광주 525-3761 · 오지 266-7601
동구	· 남광 675-5530 · 중앙 222-9054	· 동명 222-9054 · 충장 222-8171	· 동부 225-6001
남구	· 남부 675-5530 · 송파 675-6605	· 백운 651-1833 · 진월 671-7276	· 봉선 675-5530
서구	· 광천 382-5788 · 운천 376-7153 · 화정 369-1625	· 상무 372-2352 · 치평 376-6511	· 서광주 369-1625 · 풍암 603-0311
광산구	· 윤남 952-1687 · 하남 9556 451	· 월곡 959-1920 · 광산 944-0444	· 침단 973-2900